

마을과 마을이 엮어지면 더 큰 세상이 눈 앞으로 다가온다



★ 정낙추 만화작가는 태안문화원장으로 일한다. 시인이자 농부이고, 소원면 모항1리 이장을 맡고 있다. 전통소금인 ‘자염’을 복원했고, 충남작가협의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흙빛문학』에 대하소설 「풀의 역사」를 연재 중이며, 시집 『그 남자의 손』과 『미움의 힘』, 소설집 『복사는 울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차례

정낙추 만평	
마을과 마을이 엮어지면 더 큰 세상이 눈 앞으로 다가온다	3
편집인의 글	
자치분권에 따른 농촌마을정책, 위기이자 기회! 구자인	4
문화로 만나는 마을이야기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이준표	
지속가능한 시골살이를 위한 새로운 도전	9
금산에 울리는 피리 소리 이준표	14
특집 읍면과 행정리: 주민자치회 전환과 직접민주주의	
행정리 마을을 넘어 읍면 마을로 행진 서정민	21
농촌 마을의 위기와 청양군의 대응 방안 노승복	30
당진형 주민자치로 지역의 변화를 말하다 김진호	37
홍동면 마을의 주민자치를 위하여 이창신	46
컨설턴트가 바라본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야기 복권승	56
주민자치회, 농촌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박진하	64
마을 소개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만수리가 부럽지 않아요~ 연금 받는 마을 만수동 김기영	74
희망과 꿈이 샘솟는 조팝꽃피는마을 정소영	80
지상중계 제3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기록	
마을공동체농업과 청년의 연계 방안	87
정책동향	
충청남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중 박경철	103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 2020년부터 지방 이양 조영재	105
특별 기고 농민의 권리와 충청남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박경철	107
지원센터 활동보고	11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 및 연락처	116

자치분권에 따른 농촌마을정책, 위기이자 기회!

구자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농촌 마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난 4월에 기획재정부는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던 농촌 마을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여기에 따라 재정도 이관한다는 구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호의 「정책동향」에 실린 조영재 연구위원의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농촌마을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마을 사업 심사를 직접 하는 일은 없어진 셈입니다.

사실 마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농식품부)가 마을 사업을 심사하고 시시콜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해왔고, 농식품부도 2010년부터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분류해두었습니다. 갑작스런 전환이라기보다 이미 예고된 것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몇 가지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정책 시스템을 민관협력형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이 이런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행정의 정

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며,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충남이나 전북에서 이번 재정분권 계획을 오히려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 몇 차례 소규모 공부모임을 개최하고 7월 22일에는 전체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에는 시군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전체가 참여하는 직무연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정책 동향을 다시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학습하면서 각 시군별 대응 방향을 토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준비 상황에 차이가 있기에 대응 방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소위 ‘마을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농촌마을정책의 발전 정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불균등 발전이 심해지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마을리더와 활동가, 공무원들이 서로 자주 만나 공동으로 학습하고 협력관계를 튼튼하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 탓’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역(마을)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될 것은 명확합니다. 지방으로 이관된 마을 사업 예산이 단체장 공약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농촌마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은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수

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마을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전제조건입니다.

정책적 측면으로 보자면, 충남도는 상대적으로 민관협치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도 이미 12개 시군에서 개소하여 움직이고 있고, 행정에서 전담 ‘과’를 설치한 경우도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구성된 시군은 8개,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한 시군도 5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자체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치民官協治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합니다. 여기에 행정리行政里 마을의 고령화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마을 현장 상황을 보자면 넘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읍면면 단위의 주민자치에 훨씬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마을만들기는 행정리와 읍면을 동시에 보면서 출발했고, 해방 직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 읍면이 지방자치 단체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지역농업(경제소득), 아이들 교육, 어르신 복지, 농촌 교통 등 행정리 단위로만 풀 수 없는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읍면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독본』에서 다루어왔던 특집 주제를 잘 들여다보면 “마을과 마을이 읍면단위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특집 주제를 ‘읍면과 행정리’로 정하고, 아직은 현재진행형인 정책과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자세하게 읽고 여러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더욱 공부하는 마을이 되기를

올해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출범하였고, 위원장에 충남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박진도 이사장(지역재단)이 임명되었습니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고, 관련 부처에 정

책 제안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충남도의 농촌마을정책을 추진하면서 배운 경험에 기초하여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마을만들기의 실천이 열매를 맺기에 시간이 너무 더디다는 판단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농특위도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미흡한 역량이지만 농촌 마을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꿀 것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 현장을 비우는 일이 올 연말까지는 더러 있을 것입니다. 본 지면을 빌려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도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천안에서 11월 7일(목)에서 8일(금)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6년째인데, 이번 주제는 ‘농촌마을과 청년, 대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로 정했는데 마찬가지로 농촌 고령화라는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개막식에서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고, 또 농특위 청년희망위원회와 협력행사도 논의 중입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토크쇼, 분과토론, 문화공연 등도 준비 중입니다. 1년에 한 번 충남 마을만들기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갈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모여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마을’이 마을만들기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바쁜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에 모여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 자랑거리, 고민거리, 모두모두 이야기보따리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